

“자본주의 사회 속 희망 잃지 않은 우리 모습 담아”



“전에는 사회를 냉소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글을 쓰면서 좀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의 에너지가 더 생겨나는 것 같아요. 시는 힘들지만 그 속에서 나와 세계를 긍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강대선 시인은 시를 쓰면서 다소 관점이 변한 것 같다고 했다. 시의 힘일 것이다. 시를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얻었다는 말에서, 그는 시인이 될 운명을 타고 난 것 같다.

201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구룡’으로 당선된 강대선 시인. 그에게선 겸손과 성실, 근거 같은 이미지가 느껴진다.

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시를 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맑은 물보다는 흙탕물이 조금 섞인 물이 더 좋았던 거죠. 나는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벼와 같다. 오랫동안 도를 닦은 이가 깊은 성찰 후에 떨어진 깨달음 같다. 본래 시인이라는 존재는 비루한 삶 속에서도 맑은 시어를 길러내는 이가 아니던가. 무수히 많은 언어 가운데 맞춤형 언어를 선택해 또 그것을 갈고 닦아 보면 절로 도의 경지에 들 법도 하다.

“시는 좀더 형식의 틀에서 자유롭지요. 하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러 두 장르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듯 해요. 질서 속에 자유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할까요.”

그는 시조의 맛과 시의 맛이 다르지만 질서와 자유 속에서 둘 다 깊고도 웅숭한 맛을 즐긴다고 부연했다. 이번 작품집 발간의 기저에는 3년의 기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를 쓴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길어올리는 작업이라는 의미일 게다.

“과거와 단절하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새롭게 한 편 한 편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주제는 가족의 서사보다는 사회적인 내용을 바라보는 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광장과 밀실이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통로로 보았던 거죠.”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80년 광주 의 아픔과 왜곡된 언론의 배

후, 나아가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그려낸다. 표제시 ‘메타자본세카이어 신진’에서도 그러한 의미가 포착된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난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 모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장삼이사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면서 “한편으로 가족 서사와 사랑 이야기, 환경문제, 식량난, 비정규직 문제 등도 바라보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시의 길로 입문하게 된 계기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서 찾았다. 담임선생님이 자신이 쓴 시를 읽어주고 칭찬을 해주던 기억이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 아울러 글을 쓰면서 좋은 분들을 만난 것은 크나큰 행운이라고 했다.

문청시절은 아팠다는 물음에 “지금도 문청시절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어쩔면 목이 마르고 시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시를 읽으며 감명도 받지만 시를 하기도 한다”며 웃었다.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관계가 떠올라, 혹시 어떤 시인의 작품에 시를 하느냐고 물으려다 말았다. 그는 이편의 의도를 눈치 챈 듯 “좋은 시집은 모두 좋은 스승”이라는 현답을 내놓았다.

현재 그는 고교(광주여상) 교사로 재직 중이다.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창작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의외의 말이 돌아온다. “반 아이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소통을 하는데 가끔 시를 올립니다. 내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더러 선생님이지는 시가 맞는지 물어오는 녀석들도 있고요. (웃음)”

앞으로도 그는 계속 창작을 할 계획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조, 수필, 소설도 출간할 생각이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시란 나를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가 나를 써내려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시는 내가 나일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강대선

광주시립극단 창작 희곡 공모

11월 30일까지 접수

광주시립극단이 대표 레퍼토리 공연 제작을 위한 창작 희곡을 공모한다.

극단은 제1회 창작 희곡 공모전을 열고 전국의 신인 및 기성작가를 대상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소재로 창작한 희곡을 모집한다.

신춘문예, 문예지 등 인터넷 매체 포함 미발표작으로, 각종 공연에 출품되지 않은 100분 내외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다. 공모 및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희곡 5부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으로, 희곡 파일은 이메일(gjdrama@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오는 12월 2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 광주시립극단 정기공연으로 제작된다. 당선금은 1000만원이며 공연 제작 시 작가료로 지급된다. 당선작의 저작권권 및 기간 내에 발생하는 수익은 당선작 발표일부터 3년간 광주시립극단에 귀속하며, 희곡은 공연 제작 시 연출자와 협의를 통해 각색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립극단은 2014년 최홍중 선생 이야기를 담은 ‘오방선생’, 2015년 ‘정율성’, 2016년 일제시대 총장로 이야기를 담은 ‘신시아화’ 등 매년 광주를 소재로 한 ‘광주100년사 시리즈’를 선보여왔다. 문의 062-613-8230, 062-511-2759.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강대선 시인 ‘메타자본세카이어 신진’ 출간

환경·비정규직 문제 등 가족 서사 보단 사회문제 초점

“시 통해 긍정적 에너지 생겨”...시조·수필·소설 계획도

다. 새 작품집 ‘메타자본세카이어 신진’ 발간 소식을 전하는 얼굴이 사람 좋은 미소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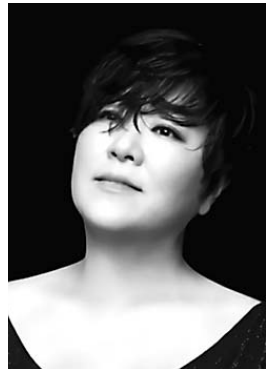
사실 그는 신춘문예 등단 전부터 실력을 인정받는 글쟁이였다. 일명 ‘재야의 고수’였다. 벌써 이번이 다섯 번째 시집이다. 201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외에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마당 깊은 집’이 동시에 당선될 만큼 탄탄한 저력의 소유자다. 한 분야도 천착하기 힘든데 그는 시와 시조 두 갈래를 쫓아두고 창작의 발을 갈고 있다.

“일 년 전부터 시집 발간 계획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시를 써야 시가 녹슬지 않을 것 같은, 안달하는 마음이 있었죠. 우물에서 흙탕물을 길어올리다 보면 나중에는 맑은 물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 ‘베토벤과 여인들’



소프라노 박현진



소프라노 민숙연

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이 ‘베토벤과 여인들(Bethoven und die Frauen)’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주최하는 월요콘서트 일곱번째 시간으로 2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작품 중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가곡을 소개한다. 독일 가곡 리트(Lied)의 효시로서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그의 가곡을 중심으로 괴테와 켈레르트의 시에 붙인 곡들을 선정했다. 레퍼토리는 ‘입맞춤’, ‘켈레르트 시에 붙인 6곡의 가곡’, ‘아말리아데’, ‘6개의 노래, Op.75’, ‘그대를 사랑해’ 등이다.

이날 공연에는 소프라노 박현진·박희현·이화희·민숙연, 피아노 이지은 등이 출연한다. 광주·전남 지역 출신의 전문 예술인들로 구성된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은 독일, 이태리 등에서 유학한 여성 성악가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관현악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전문 예술단체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은 공연장 객석의 30%를 문화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며 관람료는 1만원이다. (선착순 60명)

다음 공연은 브래싱의 ‘브라스 인 베토벤’ (7월 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공연장)이다. 문의 062-670-7942.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휴·머·니·즘

푸른연극마을 ‘인간의 무니’

7월 2~4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휴머니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연극이 열린다.

극단 푸른연극마을(대표 오성완)이 올해 두 번째 창작 공연작품 ‘인간의 무니’를 무대에 올린다. 7월 2~4일(목·금·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이 작품은 프랑스 소설가 로맹 가리가 인간과 휴머니즘에 대해 쓴 세 편의 단편소설 ‘어떤 휴머니스트’, ‘지상의 주민들’, ‘백’을 각색·극화해 엮어낸 옴니버스 연극이다.

서구 문명을 이루고 있는 휴머니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충격적인 결말을 담고있는 ‘어

떤 휴머니스트’, 전쟁과 폭력으로 인간성을 파괴하는 암담한 현실의 반전을 기대하는 ‘지상의 주민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외로움과 고독에 울부짖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젊은 남녀를 다룬 ‘백’ 등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다.

특히 이번 공연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에 던져진 ‘인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전이 가지는 인문학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

이날 공연은 오성완 대표가 연출을 맡고 최창우, 오세희, 김용희 등이 출연한다. 전석 무료이며 선착순 50명을 초대한다. (전화 예약). 마스크 착용 필수. 문의 062-226-2446.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대인문학연구원 콜로키움

‘인문복지사’ 양성 필요성 제기

무한경쟁과 갈등이 증폭되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인문복지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같은 주장은 전남대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의 주관으로 최근 열린 HK+가족커뮤니티인문학 사업단의 제12차 콜로키움에서 제기됐다.

김석수 경북대 교수(철학과)는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설립과 운영’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 경북대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설립과정 및 10년간의 운영 과정 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문학과 복지학이 결합된 정신복지의 측면에서 인문학의 새로운 소통 가능성을 모색해 소통전문가와 치유전문가가 결합된 ‘인문복지사’라는 새로운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를 통해 배출된 전문가는 인문학의 큰 축인 논리학, 수사학 등을 기본으로 갈등을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론과 현장이 결합된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앱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 화 로 프 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퀵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앞) 신전대방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창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뮤엄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엄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무크 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회사한복 신상품 대량 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화점)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만 福 堂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육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 선물포장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 리 식 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隆重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초 대 화 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대성각 중화반점 동구 무등로306-6(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머니 신속배달 ☎ 062)430-5342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				